

실속 없는 화려한 안전은 가라 기본의 충실한 안전은 우리 품으로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터보파워텍(주)은 발전터빈용 부품과 소재를 생산하는 전문기업으로 발전터빈 스팀 누설을 막아 주는 밀봉장치 기술에 있어서는 국내 독보적이다. 이들의 독보적인 기술은 엔지니어의 자존심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 발전설비 중 터빈에 있어 베일에 가려져 있을 당시 모든 부품의 전량을 해외에 의존해야 할 때 한 엔지니어의 각오는 우리나라의 발전 터빈 기술을 한 단계 올려놓았다. 그 주인공은 바로 터보파워텍 정경호 회장이다. 개인의 욕심을 먼저 채웠더라면 오늘날 이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에서 그간의 고통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케 하지만 그 어려운 순간을 극복했기에 오늘의 높은 자리에 올라설수 있을 것이다.

안전에 있어서도 특별한 터보파워텍, 작은 회사지만 그것은 단지 규모일 뿐 안전관리만큼은 대기업 못지않게 철저한 그들의 안전관리 활동을 알아보자.

취재 | 최중덕 기자

끊임없는 노력과 기술개발로 우리나라를 빛낸다.

발전 설비에 있어 터빈과 관련된 기술은 해외 의존도가 높았다. 터보파워텍(주)은 수년간의 노력 끝에 베일에 가려져 있던 터빈 부품의 국산화를 이루어 냈다. 수직 원심 구조방식 기술을 활용한 발전터빈용 부품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국내외로 기술력을 인정받았으며 98년에는 스팀 누설을 막는 밀봉장치인 Packing ring과 Spill strip 등의 개발에 성공, 신기술(NT)마크 획득과 지경부 세계일류화 상품에 선정되기도 했다.

이들의 노력으로 우리나라는 해외에 의존해야만 했던 발전 터빈 부품을 해외로 역수출하면서 정경호 회장은 금년 6월에 한국을 빛낸 6월의 무역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주물공장이 3D 업종 맞나?

이곳의 공정은 원재료가 입고되면 전기로에서 용해시키고 제품 성분을 맞춘 다음에 원심 주조를 통해 소재가 만들어진다. 그 후 냉각 그리고 열처리 공정을 통해 최종 표면 가공 후 제품이 완성된다.

이러한 공정은 대형 제철소의 축소판, 철강업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사항도 그대로 잠재되어 있다. 고온의 화기 취급에서 올 수 있는 위험요소, 공정상 다량의 분진발생 등 열악한 작업환



경이 그렇다.

그러나 이곳 터보파워텍에서는 흐트러진 모습을 찾아 볼 수 없다. 항상 가지런히 정돈된 자재들, 청결한 작업 환경, 이 모두가 이곳의 트레이드마크라 할 수 있다.

여기에는 경영주의 안전마인드도 한 몫 했다. 깨끗함을 안전의 최고로 여기는 최고경영주는 항상 청소청결을 강조하다.

점심을 먹고 나면 가장 먼저 현장을 둘러보는 것도 현장이 깨끗한지, 정리는 잘하고 있는지를 살피기 위함이다. 또한 현장에 있을 수 있는 위험요소도 찾기 위함이다. 이렇다 보니 이곳에서는 작업전 청소와 안전점검 그리고 작업후 청소와 안전점검이 생활화 되어 있다. 이러한 최고경영주의 유별난 청소청결 의식은 3D 업종의 대표라 할 수 있는 주물공장을 쾌적하고 안전한 작업장으로 탈바꿈시켰다. 그리고 3D 업종이 지저분하고 환경이 열악하다는 선입견도 바꾸게 하면서, 환경은 의지에 따라 바꿀 수 있다는 것도 보여주었다.

안전은 직원 사랑

터보파워텍은 공정에 있어서 많은 분진들이 발생한다. 그 분진 속에서 직원들을 일하게 하는 자체를 미안해하는 이 곳에서는 분진 관리에 있어서는 정리정돈 다음으로 철저하다.



분진마스크는 안전모와 더불어 이곳에서 없어서는 안될 가장 중요한 안전보호구로 여기는 것도 분진이 직원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년에는 크린 3D의 지원을 받아 집진설비를 신설하면서 작업장 내 공기질을 한층 향상시켰다.

이러한 분진과 정리정돈에 각별함을 보이는 데에는 직원사랑이 담겨있다. 현장에서 안전보호구 하나 착용하지 않거나 직원이 일을 하다 초과상이라도 입기라도 하면 정경호 회장의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도 안전이 곧 직원 사랑임을 실천하는 모습이다.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하면 계산 없이 시행

사회가 발전하면서 직원들 개인의 안전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곳에서도 직원들의 건강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는다. 직원들 체력 증강을 위해 체력 단련실을 운영하는가 하면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손길도 마다하지 않는다.

현재 이곳에서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사업장 안전과 보건협회로부터 근로자의 건강을 공중체제 속에서 지켜가고 있다.

특히 이들 기관들로부터 지적 받은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결재 시스템을 정비하여 결재 단계를 축소함으로써 신속한 대처를 위한 능동적인 자세가 인상적이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직원을 사랑하는 마음을 안전으로 표출하는 터보파워텍, 이곳의 직원 사랑은 앞으로 세계를 대표하는 기업으로 성장하는데 있어 원동력이 될 것이다. ☺



▶ 터보파워텍 정경호 회장

경영주는 현장을 알아야 안전을 볼 수 있습니다.

안전은 기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경영주의 안전마인드는 직원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최고의 덕목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나 안전에 대한 개념적 주관이 약한 일부 경영주는 이를 망각하고 안전을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영주라 하더라도 현장을 알아야만 안전이 눈에 보이는 법이고 생산과정에서 무엇이 위험한지 예지하여 사전에 제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회사는 주물공정이 주 공정으로 통상적으로 3D 업종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업무 환경이 열악하여 사고 위험이 많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회사를 다녀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주물공장 치고는 깨끗하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작업장이 깨끗하면 기본적으로 안전은 확보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안전모토는 정리정돈 그리고 청소 청결, 바로 이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에 충실한 안전은 우리 터보파워텍을 세계무대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앞으로 우리 터보파워텍은 더욱 성장할 것입니다. 안전에 있어서도 계속 진화를 꾀할 것이고 기술력에 있어서도 거듭 발전할 것입니다.

지금 가스터빈 부품 국산화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있는 직원들이 있고 어려울 때 강했던 우리에게 반드시 두번째 도전인 가스터빈 부품 국산화를 통해 한 단계 도약할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저희 직원에게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모든 일에 있어 안전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